

“농촌 발전에 이바지...수상 상금도 보탬 것”

●영암박운재씨 ‘제33회 대산농촌상’ 수상

영암군민 첫 ‘농업 노벨상’ 영예...20여년 전부터 유기농 벼농사 농법 교육 등 친환경농업 이끌어...농가 소득 증대 등에도 기여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영암군민 박운재(70·사진 가운데)씨가 최근 ‘제33회 대산농촌상’을 수상했다.

31일 영암군에 따르면 대산농촌상은 교보생명 창립자인 영암 출신 대산 신용호 선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제정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시상하는 이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에 ‘농업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데, 영암군민으로서는 박씨가 처음 수상했다. 수상 분야는 농촌 발전부문이다.

박씨는 2000년대 초부터 왕우렁이를 활용한 유기농 벼농사를 시작한 후 친환경농업 확산에

앞장서 왔다.

특히 학산면 신안정마을을 포함한 12개 마을 농민에게 유기농법을 교육해 500ha의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이끌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주도하는 등 생태계 보전에도 힘썼다.

나이가 마흔과 학교를 연결한 ‘유기농 벼농사 한 살이 프로젝트’로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유기농&토하 축제’를 개최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

이 같은 노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마을에 농업으로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산농촌재단은 박씨가 친환경농업의 가치



를 실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며, 청년 농업인에게 토지와 농기계를 지원해 정착을 돕는 한편, 지역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해 다양한 지역 활동에 힘쓰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박운재씨는 “세월이 흘러 희로애락을 함께 하던 벗들이 하나둘 홀로 돌아갔다. 벗들이 떠난 빈 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친 마을을

거닐 때면 마음에 그들이 내려앉는다”며 “시대가 어려울수록 (친환경농업 같은) 생명을 향한 본질적인 노력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산농촌상금 5천만원을 친환경농업 확대, 귀농귀촌 활성화,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농촌 발전을 위해 값지게 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암=나동호 기자

김대광 광주소방본부 소방위 ‘행안부장관상’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31일 “전날 소방청 주최 ‘2024년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광주 대표로 참가한 김대광(사진) 소방위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소방위는 소방시설업과 관련된 국가기술 자격증, 경력 수첩 대여 및 소방기술 인력의 거트 신고와 관련해 올해 4-10월 수사를 진행, 소방시설업체와 소속 기술인력의 관계 조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자의 자격 취소와 자격증 대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검찰 송치까지 이뤄져 소방특별사법경찰 활동의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대광 소방위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박성강 기자



진도경찰,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와 간담회

진도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회의실에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와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임진영 진도경찰서장을 비롯해 범죄예방대응과장, 각 파출소장, 박난수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장, 각 읍·면 연합회 회장 등 총 16명이 참석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박난수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장은 “파출소별로 구성된 개별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해 앞으로 협회 차원에서 경찰 업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진도경찰서장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진도경찰도 경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광주청 암행순찰대, 특수화물차량 안전교육

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과는 최근 대형화물차량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특수화물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활동을 벌였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특수화물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나 유아·어린이의 활동이 잦은 지역을 방문해 교통법규를 잘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윤시연 암행순찰대 팀장은 “특수화물차량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교통안전 교육을 강조하고, 법규 위반 시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광주평화재단, ‘복중관계 변화’ 평화포럼 개최

(사)광주평화재단(이사장 송경용)은 지난 30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교수를 초청, ‘복중관계의 변화와 동북아 질서에 대한 영향’을 주제로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이 교수는 “북한과 중국 관계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현재까지 악화와 회복이 반복되고 있다”며 “신냉전적 국제사회에서 복중관계는 수사와 현실의 간극이 존재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동강대 국제교류원, HTHT 토익 프로그램 수료식

동강대 국제교류원은 “최근 교수연구동 1층 글로벌 존에서 ‘2024학년도 HTHT (High Touch High Tech) AI 기반 토익(TOEIC) 프로그램’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수료식에는 22명이 참여했으며 간호학과 김수희(1년)씨와 유혜일(1년)씨가 강의 전보다 각각 100점, 175점이 향상돼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또 5명이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토익 성적이 크게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동강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하는 교

육 패러다임에 맞춰 AI 기반의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HTHT 컨소시엄’에 참여하며 관련 조직·인프라를 탄탄히 구축, ‘HTHT 대학 컨소시엄 챔피언 대학’에도 선정됐다.

허숙 원장은 “학생들의 외국어 경쟁력을 위해 토익뿐만 아니라 영어회화 자기조절학습 콘텐츠 ‘플랭 (Plang)’ 등 AI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며 실력 향상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기 기자



전남개발공사, ‘부패방지’ 등 2년 연속 통합인증

전남개발공사는 31일 “부패방지(ISO 37001) 및 규범준수(ISO 37301) 경영시스템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37001과 ISO37301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글로벌 기준으로 부패 방지와 규범 준수를 위한 경영시스템 적합성을 검증 받은 조직만 취득할 수 있다.

개발공사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 윤리적 경영 방침을 강화하고 공정·투명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개발공사는 청렴윤리·준법 경영을 위한

구체적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준법감시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전사적 준법 경영 방침과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개발공사는 부패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규범을 준수하는 경영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과 청렴한 조직 문화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종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2년 연속 통합 인증을 통해 투명 경영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기업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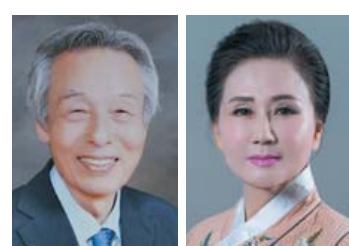
제6회 대동전통문화대상 이학수·김향순씨 선정

제6회 대동전통문화대상 수상자에 이학수·김향순씨가 선정됐다.

31일 (사)대동문화재단에 따르면 대동전통문화대상은 대동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대동전통문화대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대동문화재단운영이사회가 후원하는 상으로, 전통문화 예술 창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예인들에게 수여된다.

대동전통문화대상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뤄진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문화유산 부문 대상에 이학수(웅기장)씨를, 공헌 부문 대상에 김향순(판소리)씨를 각각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또 특별상 한우물상에는 김한수(지호 공예가), 박재배(무궁화 화가), 이당금(연극인), 이



이학수 김향순

일천(기록사진), 전양금(전통춤·호남검무), 최웅재(폼바)씨가 선정됐으며 특별상 미

래인재상은 김다정(판소리), 김웅(대금), 이민후(판소리 교수, 연주자)씨가 받았다. 한우물상 수상자에게는 200만원의 상금과 상패, 미래인재상 수상자에게는 1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

한편 제6회 대동전통문화대상 시상식은 오는 11월28일 오후 7시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개최된다. /최명진 기자

박승현 영진종합건설 회장, 장성군에 고향사랑기부

장성군은 “최근 장성 진원면 출신 박승현 영진종합건설회장(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개인 상한액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답례품으로 받는 150만원 상당의 물품도 고향 불우이웃을 후원하기로 해 훈훈함을 더했다.

박 회장은 후학양성을 위해 지난 2018년 장성 장학회에 2천만원, 전남대학교에 부부가 함께 16억원을 기부해 주목받았다.

또 내외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 1억원씩 기부하며 아너소사이어티 부부회원에 가입했는데, 이를 통해 장학금 5천만원을 장성군에 전달하기도 했다. 대한적십자사 레드크로스 아너클럽, 국제로타리재단 기부 등 꾸준한 나눔



을 이어가고 있다. 박승현 회장은 “앞으로도 장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세대공감 페스티벌’ 성료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지난 30일 오전 타운 야외잔디광장에서 1·2·3세대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세대공감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최지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김대삼 광주시사회서비스원장, 구문정 광주청년센터장,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장, 어르신, 지역민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세대공감, 세대이음, 세대통합’을 주제로 한 행사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광주청년센터,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협업해 진행했다.

빛고을타운 풍물패의 신명나는 길놀이 공연과 어린이공연(늘봄어린이집), 청소년 공연(광주대학교 치어리딩팀)을 시작으로 개회식, 축



사, 세대이음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김용덕 본부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성원으로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가 마련됐다”며 “빛고을 세대공감 페스티벌이 세대 간 간극을 줄이고 이해와 공감으로 세대가 화합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강 기자